

#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

신 혜 영(한양사이버대 조교수) · 최혜영(창원대 조교수)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아동의 또래 놀이행동을 교사와 부모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규명해보고, 이를 현장의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경상남도 지역 25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5세 아동 112명으로 남아가 67명, 여아가 45명이었다. 대상 아동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4개의 군집으로, 유형1은 다른 영역보다 적대-공격성 점수가 높은 아동 30명, 유형2는 다른 영역보다 과활동성-주의산만 영역의 점수가 높은 아동 37명, 유형3은 타 영역보다 불안-두려움 영역의 점수가 높은 아동 32명, 그리고 유형4는 적대-공격성, 과활동성-주의산만, 불안-두려움 점수가 모두 높은 아동 13명이었다. 대상 선정을 위해 Behar와 Stringfield(1974)의 아동 행동 질문지(PBQ: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박경자(1992)가 번안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또래놀이 행동 평가를 위해 최혜영과 신혜영(2008)의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교사용과 부모용을 이용하여 아동을 평정하였다. 연구 절차로 먼저 대상 아동을 선정하기 위해 25개 어린이집 만 5세반 453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동 질문지(PBQ)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세 영역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정상 범주의 아동을 제외한 112명을 선정하였다. 교사와 부모가 관찰을 토대로 대상 아동의 또래놀이 행동을 평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군집분석과 더불어 각 유형별 PIPPS의 하위영역인 놀이 방해, 놀이 상호작용, 놀이 단절의 점수를 교사용과 부모용으로 나누어 F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교사와 부모가 평정한 또래놀이 행동 중 놀이 방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또래와 놀이 시 적대-공격성, 과활동성-주의산만, 불안-두려움 세 영역의 점수가 모두 높은 복합형 집단의 아동이 놀이 방해 행동을 가장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공격성 집단, 과활동성-주의산만 집단, 불안-두려움 집단의 순으로 놀이 방해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평정에서는 복합형 집단의 아동이 불안-두려움 집단의 아동보다 놀이 방해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교사와 부모가 평정한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 행동에는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교사가 평정한 아동의 놀이 단절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안-두려움 집단의 아동과 복합형 집단의 아동이 과활동성-주의산만 집단의 아동보다 놀이에서 단절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불안-두려움 집단의 아동이 적대-공격성 집단의 아동보다 놀이에서 단절되는 행동을 더 많이 나타냈다. 반면, 부모 평정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놀이 단절 행동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또래놀이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 상호작용을 제외한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의 행동에서 문제행동 유형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 평가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되게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 중 적대-공격성, 과활동성-주의 산만, 불안-두려움 세 영역의 점수가 모두 높은 복합형 집단 아동의 부정적인 놀이 행동 감소를 위한 교육적 활용에 함의가 있다고 여겨지며, 대상별로 아동과 그 부모에게 다른 지도 방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